

이슬성신을 내려 인류를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목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랬죠? 이 땅에 위에 구세주가 와서 마귀를 전멸하게 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구세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늘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광명한 빛을 받으면 피로한 것이 없어집니다. 광명한 빛을 받으면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소멸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승리제단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된다

제일 먼저 승리제단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그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마귀가 소멸되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의 몸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게 들어와서 육체가 생긴 겁니다. 마귀의 영이 소멸되면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마음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가 앞에 있고 배가 먹고 싶으면 배가 앞에 있고 옛이 먹고 싶으면 옛이 있는 겁니다. 마음먹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승리제단의 역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인 겁니다. 그때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이나가 달나라 별나라 가는데 일초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을 날으면 바람의 저항을 받죠? 그 세상은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은 상태로 그대로 그 순간에 가버립니다. 순간에 가버리고 순간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세상을 사니까 말할 수 없이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제단에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이 못 오는 겁니다. 대대로 선한 일을 적덕한 사람의 자식만 이 승리제단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제단 나와 앉아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야 되고 저절로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이고 선악과의 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가 나라는 의식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죠?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온다

구세주가 한국 땅에 나타나다는 말이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아시아서 41장 1절로부터 9절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라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라' 이 지구 평위에 동방나라는 한국나라와 일본나라를 가리킨 겁니다. 왜 '섬들이 잠잠하라' 했느냐 하면 일본나라는 섬나라인 고로 섬나라에서는 구세주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니 열국 왕들이 세계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는 겁니다. 왜? 동방의 의인은 전지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구세주 조희성님

다음 인간으로 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완성자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으로 이주하게 한 하나님의 뜻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천년 전에 이스라엘 소라리는 땅에서 살던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을 동북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랄알타이 산맥에 가서 수백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우리 민족이 우랄알타이 산맥에 가서 살게 되니까 알타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사니까 알타이 말을 배우지 않으면 교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알타이 말을 배운 겁니다. 알타이 말을 사

용했던 우리 민족이 알타이 산맥에서 살다가 몽고 쪽으로 일차 이동을 한 겁니다. 몽고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가서 자리를 잡고서 고조선을 설립했던 겁니다. 고조선을 5천년에 설립했다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며서 한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 사사기 18장에 가서 보면 단지파가 동북쪽으로 이주해갔다는 말만 쓰여 있지, 한국 땅에 머물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3천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라리'는 땅에서 살다가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소라리를 가보면 '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왜? 우리 단지와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름이 '단'이 되어버리고만 겁니다. 지금도 '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삼천년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상 3천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몽고에서 살다가 압록강 건너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설립하고 천년 넘도록 거기에서 살 때에 알타이 말을 썼던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알타이어족이라고 동양사에게 쓰여 있는 겁니다. 알타이 말이 발전되어 가지고 한국말이 된 겁니다.

이렇게 깊이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대로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한 일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짓날 팔죽을 쑤어서 옛날에는 문설주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양의 피를 유월절날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애굽나라에서 노예생활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안 바른 애굽나라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나라 바로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중을 이끌고 광야로 향해서 갈 때에 홍해가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나라 기마병들이 막 추적을 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모세가 급히나가 지팡이를 바짝 들고 홍해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닷물이 벽을 쳐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생

긴 겁니다. 그래서 길이 생긴 그 길로 이스라엘 60만 대중이 홍해를 건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나라에서 잘 먹고 잘 지내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말을 해라!"하고서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까지 인도하라고 해서 인도했으나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해서 우리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이슬 만나입니다. 이슬만나가 내려서 눈처럼 수북하게 마당에 쌓이니까 그 만나를 삼태기로 퍼다가 하루 먹을 만큼만 퍼다가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이슬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슬성신을 내려서 구원하는 구세주를 말한다

모세가 말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구세주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이슬성신을 내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신하를 시켜 요셉을 곧 옥에서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자란 수염을 깎고 새 옷을 갈아 입고서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어내는 사람이 이 나라에는 없구나. 어디 내가 내 꿈을 풀어보도록 해라."하고 임금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분부하였습니다.

요셉은 공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제가 비록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 임금님의 꿈을 풀었다고 해도 그것은 저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푸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황송하오나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저에게 들려주시시오"



바로왕의 꿈을 풀이하는 요셉

《4장 요셉》 (2) 바로왕의 꿈

진행됨을 아시고 강조해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하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써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풍년이 든 7년 동안의 곡식 가운데서 5분의 1을 잘 장만해 두셨다가 나중에 일어나는 흉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가뭄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다른 신하들과 함께 참 훌륭한 풀이라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요셉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바로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신 인물이며, 이 큰일을 맡아 할 사람은 이 젊은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Pharaoh said to his advisors, "Can there be another person who has God's spirit in him as this man does?" 39절: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요셉

렘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2) 바로왕의 꿈 - 2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처럼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없네. 그대가 애굽 온 땅을 다스려 주게. 내 신하들도 모두 그대에게 복종할 걸세. 나는 임금이란 입장에서만 그대보다 위에 있을 뿐, 이 애굽 나라를 죄다 맡아 지배할 권리를 그대에게 주겠네." 임금님은 그 약속으로 자기 손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세마포로 치는 옷을 입히고 목에는 반짝이는 금으로 된 목걸이를 걸어 주고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

은 수레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애굽에서 임금 다음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요셉에게 '사브나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헵스 북쪽에 위치)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시는 사정을 살피기 위하여 훌륭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과연 요셉이 임금님의 꿈을 풀이한 대로 7년 동안은 많은 곡식을 거둬둘 수 있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곳곳에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창고마다 쌓아둔 곡식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



총리대신 요셉의 곡식관리

마어마한 양이 되어서 더이상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셉이 서른두 살 때에 낳았고 둘째 아들은 요셉이 서른다섯 살 때에 낳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있게 하셨다"라고 하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뒤이어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애굽은 물론 그 이웃 나라까지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동안 장만해 두었던 곡식들을 풀어내어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이웃 나라까지 퍼져 모두 애굽을 찾아 곡식을 사러 모여들었습니다.*

안젤라